# 조선전기 경복궁 동궁(東宮)과 동조(東朝)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

이 정 국*
(다리건축사사무소/건축사, 대표)

주제어 : 경복궁, 동궁, 동조(東朝), 동전(東殿), 빈전(嬪殿)

## 1. 서론

궁궐은 임금의 국가운영을 위한 공적공간으로서의 정무공간과 통치를 보조하기 위한 궁궐 내의 각종 업무공간 그리고 임금과 가족들의 사적인 생활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공간들이 독자성을 가지면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궁궐이라는 하나의 공간 속에서 통합된 궁궐건축을 완성한다. 따라서 궁궐건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공간의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임금 가족들의 생활공간인 동궁(東宮)과 동조(東朝)를 구성하는 건축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임금의 가족은 대비(大妃)와 왕비(王妃), 후궁 그리고 그 자녀들로 구성되는데 이들의 생활공간은 기록이 많지 않아 연구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다.[1)]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조선전기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선전기 경복궁은 정궁으로 건설되었지만 임진왜란 때 소실된 이후 시간적 단절이 있었기 때문에 임진왜란 이전의 경복궁 공간구조에 대해 많은 부분이 미지로 남아있다. 따라서 조선전기 경복궁의 공간에 관한 연구는 궁궐건축의 통시성을 위해 중요하다.

본 연구를 통해 조선전기 경복궁의 전체적인 공간구조를 개략적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 2. 동궁

### 2-1. 동궁의 전각구성

동궁은 세자가 거처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 교신저자, 이메일: ljk3491@hanmail.net

1) 조선전기 경복궁의 건축공간에 관한 연구는 어느 정도 축적되었다. 그러나 대부분 중심공간을 대상으로 하였다. 동궁과 중궁전의 건축공간과 관련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문이 있다. 곽순조,「宮闕運營을 通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년. 조재모,「조선시대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년. 이효석「조선시대 세자의 궁궐 공간 사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2. 이강근「조선왕조의 궁궐건축과 정치 : 세자궁의 변천을 중심으로」, 美術史學. 제22호 한국미술사교육학회, 2008.8. 경세진 외「閤門을 통해 본 朝鮮時代 宮闕의 內外槪念」,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5권 제12호 (통권254호) 2009년 12월

세자가 책봉된 이후에 필요한 공간이다. 태조가 1392년 7월 17일에 수창궁에서 즉위하였고 이어 8월 20일에는 서자인 이방석을 왕세자로 정하였다.[2] 태조3년 10월에는 한양으로 천도를 하였고 한양부 객사를 이궁으로 삼아서 거처하다가 이듬해 경복궁이 준공되었지만 세자궁을 지었다는 내용은 없다. 기록에는 세자를 구궁(舊宮)으로 옮겼다고 하였는데[3] 구궁이 어느 궁궐을 지칭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임금이 거처하는 궁과는 별도의 세자궁이 있었다.

경복궁에 세자궁이 들어서게 된 것은 세종 때였다. 세종 9년 8월에 경복궁에 동궁을 영건하기위해 창덕궁으로 거처를 옮겼다가 9월에 다시 경복궁으로 돌아와 거처하였다.[4] 경복궁으로 돌아온 것은 동궁의 영건이 끝났기 때문일 것이다. 이때 불과 1개월 만에 영건을 마쳤는데 이전부터 동궁의 영건을 준비했기 때문이다.[5] 이렇게 해서 지어진 동궁이 자선당(資善堂)이다. 그런데 동궁에는 자선당 외에도 승화당(承華堂)이 있었다.

사료1

동궁은 다른 곳에 비할 것이 아니니 진실로 헐어 버릴 수 없고……자선당 밖에 다 따로 한 궁을 지어서 살게 하려고 하니[6]

사료1은 문종이 세자로 있을 때 2명의 세자빈을 폐위하고 양원(良媛)인 권씨를 왕세자빈으로 봉하였는데 자선당에서 단종을 낳은 후 졸(卒)하였다. 이러한 일들 때문에 당시 동궁이었던 자선당이 불길하여 그 곁에 다른 동궁을 짓자는 논의이다. 이때 다시 짓기로 했는데 진행상황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이후 동궁에 승화당이라는 명칭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7] 이때 별도로 영건한 동궁이 승화당이었을 것이다.

세종 25년 4월에는 병을 이유로 세 차례의 대조하(大朝賀)와 1일, 16일의 조참(朝參)은 세종이 직접 받는데 나머지 조참은 세자가 승화당에서 남면하여 받고 세자에게 칭신(稱臣) 하도록 하였다.[8] 세자가 정사를 섭행(攝行)하고 남면하여 조회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한 신하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지만 5월에는 세자가 조참을 받기 위한 계조당(繼照堂)을 건춘문 안에 지었다.[9]

2) 『태조실록』 1년 임신(1392) 7월 17일(병신) 및 8월 20일(기사)

3) 『태조실록』 3년 갑술(1394) 10월 25일(신묘), 28일(갑오), 4년 을해(1395) 9월 29일(경신) 및 7년 무인(1398) 1월 6일(갑인) 참조

4) 『세종실록』 8년 병오(1426) 6월 15일(정축), 9년 정미(1427) 4월 9일(정묘), 8월 3일(무오), 10일(을축) 및 9월 7일(임진) 참조

5) 『세종실록』 6년 갑진(1424) 8월 2일(갑진) 및 8년 병오(1426) 6월 15일(정축) 참조

6) 『세종실록』 23년 신유(1441) 7월 25일(기미)

7) 승화당이라는 명칭은 『세종실록』 24년 임술(1442) 9월 16일(계유)에 처음 등장한다.

8) 『세종실록』 25년 계해(1443) 4월 17일(임인)

9) 『세종실록』 25년 계해(1443) 5월 12일(병인) 이강근은 세종 9년 8월 경복궁에 內堂인 자선당과 便堂인 승화당을 창건하였고 세종 25년(1443) 5월에는 세자가 백관의 조하를 받을 장소로 繼照堂을 창건함으로써 동궁이 內堂인 자선당과 便堂인 승화당, 政堂인 계조당으로 구성되었다고 하였다.(이강근, 앞의 논문, 233쪽~234쪽 참조) 그런데 『세종실록』의 오례의에는 임금이 근정전에서 의례를 행하는 '正至百官朝賀儀'와 동일한 의례인 '王世子正至百官賀儀'를 자선당에서 행하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승화당에서 행하는 의례는 오례의에 없다. 원래의 동궁이 자선당이었기에 오례의에는 자선당에서 행하는 의례만 기록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문종이 승화당을 헐라고 한 것으로(『단종실록』 즉위년 임신(1452) 6월 2일(계해)) 보아도 자선당과 승화당이 내당과 편당의 관계가 아님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임금이 동궁으로 이어했을 때(세종 19년 정사(1437) 8월 18일) 조하를 근정전에서 받고 정사는 자선당에서 보았지만 24년 9월에 이어했을 때에는 근정문에서 조하를 받고 승화당에서 정사를 보았다.(세종 24년 임술(1442) 9월 15일(임신) 및 세종 24년 임술(1442) 9월 21일(무인) 참조) 이것으로 자선당과 승

세자에게는 세자빈과 후궁이 있었다.[10] 동궁의 규모는 후궁의 인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경복궁 동궁의 규모도 세종 때가 기준이 될 수 있다.[11] 실록에 기록된 세종 때의 동궁의 내관을 정리해보면 빈으로 김씨와 봉씨가 있었지만 폐출되었다. 세종 12년에는 정씨, 홍씨, 권씨 3명의 승휘가 들어왔는데 이중 권씨가 봉씨 폐출 이후 세자빈으로 책봉되었다. 세종 20년에는 유씨가 들어왔으며, 24년에는 승휘 문씨와 권씨, 30년에는 소훈 윤씨가 들어왔다.[12] 따라서 권씨가 세자빈이 된 이후로 6명의 내관이 있었으며 내관 이외에 궁관들도 후궁이 되었다. 동궁에는 이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다.

사료2

1) 빈께서 소쌍(召雙)과 항상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 한다……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하므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13]

2) 세자가 오랫동안 밖에 옮겨 가 있다가 돌아와서, 궁궐에 들어와 뜰을 돌아다니며 구경하였는데, 빈의 궁(嬪宮)에 가까이 이르니, 봉씨가 지게문으로 바라보고 말하기를, '저 분이 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不入內) 공연히 밖에서 걷고 있을까.' 하면서[14]

3) 종5품……세자궁의 설리(薛里) 등으로 …… 정6품……세자궁의 주방(酒房), 빈궁(嬪宮)의 설리·주방 등으로……종9품 …… 세자궁·빈궁의 은기성상, 세자궁 다인청의 각색장으로 체아직이다.[15]

4) 며칠 전 대전 사알(大殿司謁) 김우남(金宇男) 등이 올린 수본(手本) 내에 '빈궁사약(嬪宮司鑰)을 특별히 차출' 운운하였습니다.[16]

사료2의 1)은 세종 때 2번째 세자빈인 봉씨를 폐출시킬 때의 일이다. 봉씨가 여종 소쌍을 사랑하여 잠자리와 거처를 같이한다고 하였는데 세자와 세자빈이 함께 거처하는 공간이라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사료2의 2)에서 빈궁(嬪宮)은 세자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세자가 거처하는 궁과는 별도로 존재했던 빈의 거처를 말하는 것이다.

사료2의 3)은 『경국대전』에 있는 내시부의 관직관련 내용이다. 정5품인 세자궁의 설리와 정6품 주방이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정6품인 빈궁의 설리와 주방이 있었다. 이는 거처하는 공간이 서로 달라서 각각의 담당 내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은기성상이 세자궁과 빈궁에 각각 존재했지만 다인청의 각색장은 세자궁에만 있었기 때문에 별도로 기록한 것이다. 사료2의 4)는 인조 때의 일로 빈궁사약이 있었다. 빈궁에 사약이 있는 것은 세자궁과는 별도로 문을 열고 닫아야 할 공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세자가 거처하는 공간과 세자빈이 거처하는 공간은 별도로 존재했었다. 또한 세종 때 세자빈

화당이 같은 종류의 공간임을 추정할 수 있다.

10) 세종 12년에 동궁 내관(內官)과 궁관(宮官)의 관제를 정하였다.

11) 임금의 재위기간이 길수록 세자가 세자로 있는 기간도 길어지게 되고 세자의 후궁도 많아진다. 조선전기 임금의 재위기간은 선조(42년), 중종(39년), 세종(33년)의 순인데 광해군은 17년, 인종은 25년, 문종은 30년 동안 세자로(『세종실록』 3년 신축(1421) 10월 27일(병진) 및 『문종실록』 즉위년 경오(1450) 2월 23일(정유)) 있어서 조선전기에 문종이 세자로 있던 기간이 가장 길었기 때문이다.

12) 『세종실록』 9년 4월 9일, 11년 7월 18일, 10월 15일, 12년 12월 14일, 20일(병술), 13년 3월 13일, 15일, 18년 10월 26일, 18년 병진(1436) 12월 28일, 20년 5월 8일(신묘), 23년 9월 21일, 24년 6월 26일(을묘), 30년 5월 6일 참조

13) 『세종실록』 18년 병진(1436) 10월 26일(무자)

14) 『세종실록』 18년 병진(1436) 11월 7일(무술)

15) 『經國大典』 권1 吏典 內侍府 및 雜織 司饔院

16) 『承政院日記』 인조 3년 을축(1625) 8월 19일(을미)

을 제외한 5품 이상인 6명의 내관과 그 밑으로 많은 궁관들이 동궁 안에 거처했다.

### 2-2. 전각의 공간구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종 때 경복궁 동궁에는 계조당과 자선당, 승화당이 있었고 세자빈전과 후궁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

사료3

1) 문외위를 궁문 밖에 설치하되····합문(閤)에 나아가서 왕세자를 받들어 맞이하는데,····왕세자가 자리에서 내려와 내전(內)으로 돌아가는데,[17]

2) 왕세자의 자리를 승화당의 동벽에 서향하여 설치하고····문외위를 궁문 밖에 설치하되····합문 밖에 나아가서 꿇어앉아 내엄을 찬청하고····왕세자가 자리에서 내려와서 내전(內)으로 돌아가는데[18]

3) 왕세자의 좌차를 계조당 가운데에 서향하여 설치하고····종실과 무관 1품 이하의 자리는 당의 뜰 길 북쪽에 설치하는데····합문으로 나아가 봉영한다. 왕세자는 후당(後堂)으로 나아가 시복 차림으로 좌차에 올라 서향하며····첨지통례가 외판을 아뢰면, 왕세자는 계조당을 나와서 좌차에 오르는데····왕세자는 좌차에서 내려와 들어가는데[19]

사료3의 1)은 왕세자가 정지(正至)에 자선당에서 백관의 하례를 받는 의식이다. 자선당 밖에는 궁문이 있고 그 안에 자선당, 그리고 안쪽으로 합문(閤)이 있는 구조이다. 합문 안에는 내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세종실록』에 기록된 왕세자빈 책봉의례(冊王世子嬪儀)에서 공간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하면 먼저 사자의 위차(次)는 동궁의 대문 밖, 자리(位)는 내문(內門) 밖에 설치 → 내문 밖에서 교명(敎命)과 책(冊), 인(印)을 전하면 전내가 이를 가지고 내문 안으로 들어와서 합문(閤) 밖의 안(案)에 놓는다. 사규가 빈을 인도해서 교명 등을 받는 자리(내전 뜰 가운데)로 나와 서게 한다. 장서가 문에 나아가(掌書詣門) 교명 등을 가지고 와서 사칙에게 주면 → 빈 → 사규의 순으로 전한다. 이후 빈은 내전에 있는 자리(內殿東壁)로 가서 예를 끝마치고 나면 침실로 돌아간다.(還寢)[20]

이 기록은 세종 19년 2월 양원 권씨를 세자빈으로 책봉할 때의 일로 승화당을 영건하기 이전의 일이므로 자선당에서 행한 의례였다. 의례의 출입과정은 대문 → 내문 → 합문으로 이어져서 3개의 문을 거치게 되어 있고 왕세자빈이 나오는 문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사료3의 1)에 비해 문이 2개가 더 기록되어있다. 두 기록의 차이는 왕세자와 왕세자빈의 의례인데 왕세자빈의 의례에는 문이 더 있는 셈인데 내문 안에 빈이 의례를 행하는 내전(內殿)이 있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합문의 위치가 문제이다. 합문은 담장이나 행랑의 출입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각의 출입문일 수도 있다.[21] 그런데 전내(典內)가 교명 등을 합문 밖의 안(案)에 놓은 다음에 사규가 세자빈을 도와서 나오게 되어 있다. 만약 합문 안에 세자빈이 거처하는 침전이 있

17) 『세종실록』,五禮, 嘉禮儀式, '王世子正至百官賀儀'

18) 『문종실록』 즉위년 경오(1450) 8월 20일(신묘)

19) 『세종실록』 25년 계해(1443) 6월 3일(병술). 그런데 여기에서 왕세자가 계조당을 나와 좌차에 오른다고(王世子出繼照堂升座) 하였는데 계조당의 자리로 오른다는 의미이다.

20) 『세종실록』 19년 정사(1437) 2월 14일(갑술)

21) 세종 29년 세자가 승화당에서 정사를 보는 의식을 정하였는데 승지가 서쪽 협문(俠門)으로 들어와 서계(西階)를 거쳐 서쪽 합문(閤門)으로 올라와서 앞 기둥(前楹)에 부복한다고 하였다. 여기에서 합문은 승화당의 마당으로 출입하는 문이 아니라 승화당에 붙어있는 문으로 해석된다. 『세종실록』 29년 정묘(1447) 9월 19일(무신) 참조

었다면 세자빈이 합문을 나올 때 임금이 내린 교명 등을 아무런 의례가 없이 지나쳐올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말하는 합문은 세자빈이 의례를 위해 나오는 담장의 출입문이 아니라 내전에 붙은 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세자빈이 나오는 문이 따로 있었고 의례가 끝나면 이 문을 통해 내전이 아닌 침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것은 자선당과 별도로 세자빈전이 있었기 때문이며 이 문은 세자빈전으로 통하는 문이었다.

위의 사료3의 2)는 왕세자가 승화당에서 조하를 받는 의식(王世子受朝賀儀)이다. 문외위는 궁문 밖에 있고 승화당에 왕세자의 자리가 있으며 왕세자는 합문(閤)으로 나아가 자리로 간다. 의식이 끝나면 내전(內)으로 들어간다. 즉 승화당이 있고 그 뒤에는 내전이 있는 구조로 앞에서 본 자선당과 유사한 형식이다. 승화당에서는 조하뿐만 아니라 정사도 보았다.[22]

세조 8년 경복궁 서북쪽에 세운 세자궁을[23] 성종 때 원묘인 연은전(延恩殿)으로 사용하였다. 성종 6년 10월 15일에 옛 세자궁이 신전(新殿)을 짓는데 합당하다고 하여 연은전이라 하였는데 불과 6일 후에 덕종의 위판(位板)을 연은전에 봉안한 것을 보면[24] 새로 짓지 않고 기존 건물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이는 연은전이 전전(前殿)과 후전(後殿)으로 구성되어서[25] 세자궁과 동일한 공간형식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사료3의 3)은 왕세자가 계조당에서 조참을 받는 의식이다.(世子受朝參儀註) 왕세자의 좌차가 계조당의 가운데에 설치되는데 서향을 한다. 그리고 문무관의 자리를 당정(堂庭)의 길 남쪽과 북쪽에 설치한다는 것은 길이 동서방향으로 나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계조당은 서향임을 알 수 있다. 계조당은 세자가 조참을 받기 위해 세워진 전각으로 임금이 계시기 때문에 남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서향으로 세운 것이다. 그리고 후당(後堂)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계조당이 전당일 것이며 후당으로 들어가는 문이 합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자선당이나 승화당, 계조당 모두 전당과 후당이 있는 구조이며 계조당은 서향으로 되어있었다. 그리고 동궁은 행랑으로 둘러싸여 있는 공간이었다.[26] 그런데 이때는 승화당이 세워지기 이전의 일로 자선당과 내전이 행랑으로 둘러싸였으며 승화당은 별도로 행랑을 갖는 형식으로 이루어졌을 것이다.(그림2 참조)

단종이 즉위하고 문종의 뜻으로 계조당과 승화당을 헐었다고 했다.[27] 아마도 계조당과 승화당은 임시로 설치된 전각이었으며 특히 세자가 조참을 받고 정사를 논의했던 공간의 존재에 대한 부담감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중종 38년에 동궁이 화재로 소실되었고[28] 명

22) 『세종실록』 29년 정묘(1447) 9월 19일(무신)

23) 『세조실록』 8년 임오(1462) 12월 10일(경오)

24) 『성종실록』 6년 을미(1475) 10월 15일(신묘) 및 21일(정유) 참조)

25) 『성종실록』 18년 정미(1487) 2월 15일(을유

26) 『세종실록』 21년 기미(1439) 10월 26일(신축)

27) 『단종실록』 즉위년 임신(1452) 6월 2일(계해) 그런데 용재총화에 의하면 계조당이 동궁의 바깥뜰에 있었는데 철거되어 그 터조차 없다고 한 것을 보면(成俔, 『慵齋叢話』 제2권) 단종 때 계조당이 헐려서 없어진 것은 확실하다. 4월 11일(계유)) 그러나 이 기록에 승화당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 성종 때 승화당이 있었으며(『성종실록』 14년 계묘(1483)) 중종 25년에 정현왕후가 승화당으로 이어한 것으로 보아(『중종실록』 25년 경인(1530) 8월 19일(병자) 원래 자전이 승화당에 이어하는 문제를 논의하였는데 승정원으로 이어하였다가 이때 동궁으로 이어한 것으로 보면 동궁은 승화당일 것이다. 중종 25년 경인(1530) 8월 16일(계유) 참조) 단종 때 승화당은 헐리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28) 『중종실록』 38년 계묘(1543) 1월 7일(임자)

종 9년 중건되었을 때[29] 자선당만 중건하고 승화당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30]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동궁은 일화문 밖에 있다고 하였다.

사료4

1) 소변을 보기 위해 세자궁 서북쪽 담장 밖에 있는 동산(世子宮北邊墻外東山)의 나무 밑으로 갔었습니다.……세자궁 북쪽 담장 밖의 동산에 있는……그곳으로 통행하는 문을 닫아걸고 통행하지 못하게 했습니다.……세자궁이 있는 동산(東山)은 바로 삼전(三殿)의 하인들이 통행하는 곳이므로 지적하기가 과연 곤란합니다.[31]

2) 대비(大妃)께서 승하하신 다음에 내가 승화당에 있었는데……궁벽한 한구석에 있어 허술한 듯하니……승화당이 동궁에 있기는 하지만 비현각과 가까우므로 낮에는 승화당에 있고 밤에는 비현각에 있는 것이다.[32]

3) 동궁에 달려가 보니 화세(火勢)가 치성하여 자선당까지 불탔다.……승화당은 대내(大內)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먼저 그 집을 철거하여 불길이 번지지 못하게 하니 화세가 차츰 꺾였다.[33]

사료4의 1)은 중종 22년 작서의 변(灼鼠之變)이 일어났을 때 관련자들의 공사(供辭) 내용이다. 이 기록에 의하면 세자궁은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서북쪽 담장 밖에는 동산이 있었다.[34] 그리고 이 동산은 삼전(三殿)[35]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로 문이 있었다.

사료4의 2)에 의하면 승화당과 자선당은 모두 동궁에 포함되는데 승화당이 자선당보다는 중심영역 즉 서쪽에 가깝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궁벽한 한 구석이라 한 것을 보면 주변에는 전각들이 많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궁의 북서쪽에 언덕이 있던 것을 고려한다면 동궁은 중심영역에서 동쪽으로 치우쳐 있었을 것이다.

사료4의 3)은 중종 22년 동궁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일로 이 기사에 의하면 사전당과 승화당은 화재가 옮겨 붙은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 승화당은 대내와 연결되어 있었고 그 북쪽에는 내관이 출입할 수 있는 문이 있었다.[36]

사료5

1) 세자궁 안이 편치 못하여 장차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移次]고자 하나, 계조당은 동궁에 가까우므로, 이곳에서 조참을 받을 수 없으니[37]

2) 서연과 시강(侍講)을 하는 곳은 자선당이 되었으며, 백관의 조회 받는 곳은 계조당이 되었다.…계조당은 동궁의 바깥 뜰에 있었는데,(繼照堂在東宮外庭) 지금은 철거되어 그 터도 없다.[38]

29) 『명종실록』 9년 갑인(1554) 9월 18일(병진)

30) 그 이유로는 퇴계가 경복궁 중수기를 지었는데 자선당 상량문은 있지만(이황 『退溪先生文集』 卷之四十四 上樑文 東宮資善堂上樑文) 승화당과 관련된 중건 자료는 없고 또 화재 이후로는 승화당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마도 자선당이 동궁의 정전이었고(『중종실록』 19년 갑신(1524) 10월 12일(계묘)) 승화당은 불필요했기 때문에 중건하지 않았을 것이다.

31) 『중종실록』 22년 정해(1527) 3월 24일(신축)

32) 『중종실록』 25년 경인(1530) 9월 1일(정해)

33) 『중종실록』 38년 계묘(1543) 1월 7일 (임자)

34) 사료4의 1)에는 동산이 세자궁의 북쪽이라고도 했는데 해방(亥方)이라고 한 것을 보면 서북쪽에 있었다.『중종실록』 22년 정해(1527) 3월 27일(갑진) 참조.

35) 삼전은 대비전, 대전, 중궁전을 말하는데 대비전은 성종의 계비(繼妃)이자 중종의 생모인 자순 왕대비(慈順王大妃)이며 중궁전은 중종의 제2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를 말한다.

36) 『중종실록』 38년 계묘(1543) 1월 8일(계축)

37) 『세종실록』 30년 무진(1448) 11월 8일(경인)

38) 成俔 『慵齋叢話』 제2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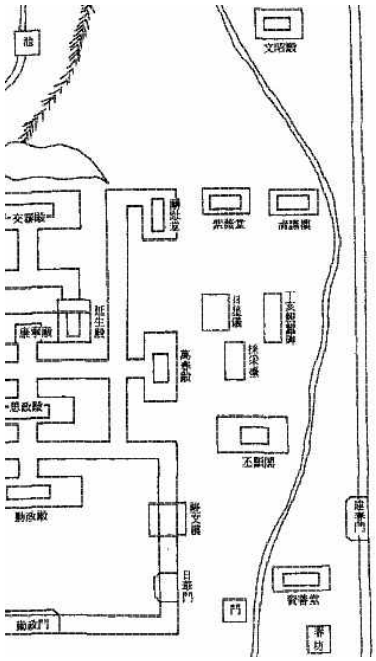
사료5의 1)은 세자궁이 편치 못하여 세자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데 세자가 조참을 받던 계조당이 동궁과 가깝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조참을 받도록 하는 논의이다. 이 기록을 보면 계조당과 동궁이 같은 공간에 위치하지 않았다. 사료5의 2)에서도 역시 계조당은 동궁의 바깥뜰에 있다고 하여 동궁과는 구분된 공간에 있었다. 동궁영역의 평면과 배치를 추정해보면 그림2와 같다.

## 3. 동조 영역의 건축공간

### 3-1. 동조(東朝)와 동전(東殿)

태후(太后)가 거처하는 곳이 대내(大內)의 동쪽에 있었기 때문에 동조(東朝)라고 한 것처럼[39] 일반적으로 동조는 대비를 가리키는 말이다. 실록에서 동조를 사용한 예를 보면 대부분 대비(大妃)를 지칭하는 용어이지만 동궁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기도 하였다.[40] 동조라는 용어 외에도 동전(東殿)이라는 명칭이 사용되었는데 동전은 세자를 가리키기도 하였지만[41] 일반적으로는 왕비를 지칭하는 용어였다. 동전이라는 용어는 태종 때 창덕궁에서 비롯되었다고 한다.[42]

이러한 명칭을 통해서 살펴보면 대비와 동궁뿐만 아니라 왕비가 거처하는 공간도 임금의 침전공간에서 기준할 때 동쪽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비록 조선후기에 그려졌지만 조선전기




<그림 1> 『경복궁전도』의 동궁, 동조영역(부분, 삼성출판박물관)

경복궁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그림에는 동조영역과 관련된 전각은 없다.(그림1 참조) 이는 동조영역이 왕실의 사적인 공간이었고 그곳의 전각에 고유의 명칭이 없었으며 그 명칭이 기록되지 않았던 까닭으로 판단된다.

사료6

1) 인덕궁(仁德宮)은 공안부(恭安府)에서, 대전(大殿)은 내자시(內資寺)에서, 정비전(靜妃殿)은 내섬시(內贍寺)에서, 성비전(誠妃殿)·세자전(世子殿)은 경승부(敬承府)에서 식례에 의하여 진공(進供)하고[43]

2) 대전 좌우번(大殿左右番)과 반감(飯監)까지 합하여 6명,……별사옹(別司饔) 14명……승전색방직(承傳色房直) 2명, 사약방직(司鑰房直) 2명……공비전 별감(恭妃殿別監)의 좌우번 12명….별사옹 6명,….승전색방직 좌우 2명……사약방직 좌우 2명……의빈전(懿嬪殿) 별감 좌우

39) 金堉 『潛谷遺稿』 제6권 疏箚 修理都監에 대해 논하는 차자

40) 『성종실록』 14년 계묘(1483) 2월 6일(기사) 또 『선조실록』 25년 임진(1592) 9월 17일(갑술) 등 참조

41) 『태종실록』 12년 임진(1412) 1월 18일(계묘) 또는 任統 『丙子日本日記』 2월 25일(을미) 참조

42) 『세종실록』 9년 정미(1427) 1월 26일(을묘)

43) 『태종실록』 17년 정유(1417) 10월 26일(무신)

4명····별사옹 좌우 4명····명빈전 직노(明嬪殿直奴)가 4명으로서[44]

3) 내시부는 중관(中官)이라 하고, 사알·사약·서방색은 액정(掖庭)이라 하고, 중궁의 속고치(速古赤)·사약은 경창(慶昌)이라 하고, 동궁(東宮)의 속고치·사약·서방색은 인순(仁順)이라 하고[45]

4) 왕세자의 악차(幄次)를 중궁(中宮) 정문 밖에 설치하고,····중궁의 자리를 중궁 정전(正殿) 북쪽 벽에 남향으로 설치한다.·····왕세자의 자리(位)를 중궁 정전의 뜰에 북향으로 설치하고·····왕세자를 인도하여 악차의 자리로 나아간다.(詣次座)·····내합(內閤)에 나아가서 받들어 맞이한다. 첨지 통례는 왕세자를 인도하여 나와서 합문 밖에(閤外) 선다.·····내시가 왕세자를 인도하여 합문(閤門)에 이르면, 사빈(司賓)이 받아서 왕세자를 인도하여 들어와 자리에 나아간다.·····사빈이 왕세자를 인도하여 합문에 이르면, 내시가 받아서 인도하여 나간다.(引王世子至閤門, 內侍承引以出)[46]

5) 이른 아침에····대전께 문안을 갔더니 술을 하사하셨고 곧 공의전의 앞으로 가서 문안하니 또 술을 주시고 또 의성, 중전께 가서 문안을 드리니[47]

6) 아침부터 종일 출입할 시에 대전(大殿)의 각 색장은 영추문, 중궁·동궁·문소전의 각 색장들은 건춘문으로 출입하게 하고[48]

사료6의 1)은 태종 때 채소 등을 진공(進供)하는 침장고(沈藏庫)를 혁파하는 내용으로 침장고 대신 대전, 정비전, 성비전, 세자전 등에 진공할 관아를 지정하고 있다. 정비전은 태종의 비이며 성비전은 태조의 비이다.[49] 기사의 내용을 보면 담당 관아가 다른 것은 거처하는 전각이 달랐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서로 다른 관아에서 대전과 왕비전인 정비전에 각각 진공하고 있다.

사료6의 2)는 대궐 안에서 신부(信符)를 차고 다닐 사람들의 수효를 정한 내용인데 음식을 담당하는 별사옹이 대전(大殿)에 14명, 공비전에 6명, 의빈전에 4명이 있고 명령의 출납을 담당하는 내시인 승전색의 방직이 대전과 공비전에 각각 2명씩 그리고 문의 열쇠를 담당한 사약의 방직이 각각 2명씩 있었다. 사약은 『경국대전』에 대전(大殿)이 3명, 왕비전과 세자궁은 2명으로 정해졌다.[50] 공비는 세종의 왕비인 소헌왕후로 대전과 왕비전에 별도의 별사옹이나 승전색, 사약방이 있다는 것은 대전과 왕비전이 서로 독립된 공간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 사료는 창덕궁에서의 일이지만 조직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경복궁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이다. 사료6의 3)은 경복궁에서의 일이다. 이 사료는 도장에 새길 명칭을 정하는 내용인데 중관이나 액정은 대전에 속하는 환관들이고 이와는 별도로 중궁과 동궁에 속고치와 사약이 있었다. 속고치는 궁중에서 옷을 담당하며 사약은 각 문의 열쇠를 담당하는데 이들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도 전각이 별개로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사료6의 4)는 정조(正朝)와 동지(冬至)에 경복궁에서 왕비가 왕세자의 조하를 받는 의

44) 『세종실록』 5년 계묘(1423) 2월 10일(신유)

45) 『세종실록』 20년 무오(1438) 5월 23일(병오)

46) 『세종실록』 12년 경술(1430) 윤12월 28일(갑자)

47) 柳希春 『미암일기(眉巖日記)』 제3권 癸酉年 正月 初一日 潭陽鄕土文化硏究會, 1994. 488쪽 '早朝 ····問安于大殿 蒙賜酒 遂至恭懿殿前問安 又蒙賜酒 又至懿聖·中殿前問安 懿殿又賜酒'

48) 『세종실록』 20년 무오(1438) 5월 23일(병오)

49) 정비는 태종의 비(妃)인 원경왕후로 태종이 즉위하고 정빈(貞嬪)이었던 민씨(閔氏)를 비(妃)로 책봉했고 성비는 태상왕(太上王)의 빈이었던 원(元)씨로 태종 6년에 성비로 삼은 것이다. 『태종실록』 1년 신사(1401) 1월 10일(경오) 및 6년 병술(1406) 5월 2일(신묘) 참조

50) 『經國大典』 권1 吏典 雜織 掖庭署

식(中宮正至受王世子朝賀儀)이다. 이 사료에서는 왕세자의 악차를 중궁의 정문에 설치하고 중궁의 자리를 중궁의 정전에 설치하였다. 즉 임금의 정전과는 다른 중궁의 정전이 별도로 존재했다고 보아야하며 이것은 곧 사료6의 2)에서 보는바와 같이 창덕궁의 왕비전에 해당하는 공간이다.

사료6의 5)는 선조 6년(1573년) 정월 초하루 문안인사를 드릴 때였는데 먼저 임금에게 문안을 하였고 공의전과 의성전, 그리고 중전에게 각각 별도로 문안을 드리고 있다. 위의 사료에서 보았듯이 임금과 중전은 별도의 생활공간이 있었기 때문에 문안도 따로 드렸으며, 또한 각 전각을 출입하는 사람들의 출입문도 달랐던 것이다. 사료6의 6)은 대전에서 일하는 사람은 영추문으로 출입하고 중궁이나 동궁, 문소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궁궐 동쪽 문인 건춘문을 통해 들어가도록 하였다.

임금에게는 왕비와 빈, 그 외에 후궁들이 있었다. 세종 이전에는 주로 빈과 궁주, 옹주 등으로 불리었다가 세종 10년에 내명부의 관제를 정했다.[51] 그리고 『경국대전』에는 품질(品秩)을 약간 조정해서 정1품인 빈으로부터 차례대로 귀인(貴人), 소의(昭儀), 숙의(淑儀), 소용(昭容), 숙용(淑容), 소원(昭媛), 그리고 종4품인 숙원(淑媛)이 있으며 정5품인 상궁 이하의 궁관으로 정해졌다.[52]

사료6의 2)에서 보았듯이 궐내에서 신부(信符)를 차고 다닐 사람들의 수를 정할 때 대전과 공비전, 명빈전, 의빈전을 언급하였다. 이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출입에 관한 내용으로 중궁전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듯이 명빈전과 의빈전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서 명빈전과 의빈전만을 언급하였는데 당시 태종이나 세종의 빈은 태종의 후궁인 명빈과 의빈밖에 없었다.[53] 이는 세종 때의 일이지만 태종 때 명빈전(明嬪殿)의 시녀 3인을 놓아 보내라고 명한 것을 보면[54] 태종 때에도 역시 별도의 빈전(嬪殿)이 존재했었다.

51) 『세종실록』 10년 무신(1428) 3월 8일(경인)

52) 『경국대전』 권1 吏典 內命婦條. 여기에는 내명부의 인원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후궁의 인원은 일정하지 않았고 빈전이나 궁주전 역시 일정하지 않았다.

53) 태종이 임금으로 있었을 때 왕비로 정비(靜妃)가 있었고 후궁으로 명빈(明嬪)과 3명의 궁주가 있었는데(『태종실록』 12년 임진(1412) 12월 28일(기묘)) 3명의 궁주는 정의궁주, 소혜궁주, 숙공궁주이다. 정의궁주는 태종 2년에 책봉되었고,(『태종실록』 2년 임오(1402) 4월 18일(경오)) 명빈 김씨는 태종11년(11월 20일)에, 그리고 세종 4년에 정의궁주(貞懿宮主) 권씨(權氏)가 의빈(懿嬪)으로 책봉되었다.(『세종실록』 4년 임인(1422) 2월 20일(정미))
그런데 변계량의 태종 신도비명에는 태종이 훙어(薨御)했을 때 태종의 후궁으로 의빈(懿嬪) 권씨, 소혜궁주(昭惠宮主) 노씨, 신녕궁주(信寧宮主) 신씨, 궁인(宮人) 안씨, 김씨, 고씨, 최씨, 이씨, 김씨가 기록되어 있는데(『태종실록』 18년 무술(1418) 11월 8일(갑인)) 명빈김씨는 보이지 않는다. 다만 이 기록에서 궁인 김씨가 1녀를 낳았다고 했는데 김씨로 1녀를 낳은 사람은 명빈김씨 밖에 없다. 명빈은 이후 실록에 계속 등장하는데 변계량이 궁인으로 기록하였고 또한 사료5의 1)에서 명빈이 의빈보다 일찍 빈에 책봉이 되었지만 신부를 차고 다닐 사람들 수가 의빈전이 아주 많은 것을 고려해보면 당시 명빈의 지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정인지가 지은 세종대왕의 비명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훙어(薨御) 했을 때 빈은 신빈김씨(愼嬪金氏)와 혜빈양씨(惠嬪楊氏) 두 명이 있었다.(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제7권 京畿 驪州牧 陵墓 英陵條) 김씨가 빈으로 책봉된 시기는 기록에 없지만 세종21년에 소의 김씨를 귀인으로 삼은 것을 보면 빈으로 책봉된 것은 이후의 일이다.(『세종실록』 21년 기미(1439) 1월 27일(병오)) 양씨는 세종 27년에 귀인이었기(『세종실록』 27년 을축(1445) 12월 1일(경자)) 때문에 혜빈은 그 이후의 일이다. 이처럼 사료5의 1)이 기록된 세종 5년에는 후궁 중 빈이 명빈과 의빈밖에 없었다. 그리고 세종2년에 대비의 훙어(薨御)를 대비해서 빈소(殯所)를 준비하는데 수강궁이 좁기 때문에 명빈전을 수리하도록 요청한 것을(『세종실록』 2년 경자(1420) 7월 7일) 보면 태종은 양위를 하고 창덕궁에서 물러갔지만 빈은 그대로 창덕궁에 남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54) 『태종실록』 14년 갑오(1414) 6월 10일(신해)

규모에 차이가 있었겠지만 왕비뿐만 아니라 빈(嬪)들도 별도의 전각이 있었음을 보았다. 그리고 세종 7년에 탄자(彈子)를 쏘다가 장의궁주전(莊懿宮主殿)을 범하여 형조에서 탄핵한 기록이 있는 것을[55] 보면 궁주까지도 별도의 전각에서 생활했음을 알 수 있다.

### 3-2 동조의 공간구성

다음은 중궁전의 평면형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앞의 사료6의 4)에 의하면 왕세자는 중궁정문 밖의 악차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정문을 들어가면 사빈이 합문에서 왕세자를 인도하여 정전의 뜰에 설치된 자리에 나아간다. 그리고 왕비는 내전에서 내합을 통해 나와서 중궁 정전의 북벽에 있는 자리로 간다. 즉 정문이 있고 정전 앞에 합문이 있으며[56] 내합을 지나 내전이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록에는 이 사료와 함께 중궁이 여러 신하들의 조하를 받는 의식(受群臣朝賀儀)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종실(宗室)과 여러 신하들의 자리를 정문 밖에 설치하였고 정전 앞의 합문은 등장하지 않는다. 두 의례가 연달아 기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중궁 정문과 정전 앞의 합문은 서로 다른 공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왕세자는 중궁의 정문과 합문을 통해 들어가서 중궁의 정전 마당에서 조하했지만 군신들은 중궁의 정문 밖에서 한 것이다.

세종 14년에는 왕비 책봉의주(冊封王妃儀注)를 올렸는데[57] 이 기사에서는 영의정과 호조판서 등이 책함(冊函)과 인수(印綬)를 가지고 왕비궁문(王妃宮門) 밖에 이르면 알자(謁者)가 인도해 들어가서 왕비정문(王妃正門) 밖의 길에 설치된 위차로 들어간다. 그리고 상궁은 왕비를 인도하여 정전의 서방(西房)으로부터 나온다. 의례는 정문 밖과 정전 뜰에서 이루어지는데 의례를 마치면 왕비는 여(輿)를 타고 안으로 들어간다. 여를 타고 들어간 것을 보면 안(內)이라고 한 곳은 처음에 나왔던 정전의 서방이 아니라 내전을 의미할 것이다. 그런데 이곳에서도 정전 앞에 있는 합문은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왕비궁문 밖에서 왕비정문 밖으로 들어간 것은 궁문과 정문이 서로 다름을 의미한다.

『세종실록』 오례의의 중궁정지회명부의(中宮正至會命婦儀)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58] 사빈이 내명부를 인도해서 정전문 밖의 동상(東廂)에 서게 하고 사규는 왕세자빈을 인도해서 서상에 서게 하였다. 왕비는 내합(內閤)을 통해 정전으로 나오고 사빈이 내명부와 왕세자빈, 외명부를 인도해서 동문과 서문을 들어와 전계(殿階) 위의 배위(拜位)로 나아간다. 사빈이 내명부의 반수(班首)를 인도해서 동문을 지나 들어와서 전내(殿內)에 설치된 주정(酒亭)의 동쪽에 나아간다. 의례가 끝나면 왕비는 내전으로 돌아간다.(還內)

이 의례에서 왕비는 내전에서 정전으로 나왔고[59] 명부와 왕세자빈은 정전 문밖의 동상

55) 『세종실록』 7년 을사(1425) 5월 19일(무자) 장의궁주는 세종 6년에 궁주로 책봉되었다.(『세종실록』 6년 갑진(1424) 10월 27일(무진) 참조)

56) 세조3년의 왕세자조왕비의(王世子朝王妃儀)에 왕세자가 궁문을 들어가 정전 합문(閤) 밖의 동상에 이른다고 한(『세조실록』 3년 정축(1457) 12월 15일(을사) 참조) 것을 보면 합문은 정전 앞쪽의 문을 말하는 것이다.

57) 『세종실록』 14년 임자(1432) 5월 11일(무진)

58) 『세종실록』 五禮 嘉禮儀式 中宮正至會命婦儀

59) '常參儀'나 '中宮正至王世子朝賀儀' 등을 예로 들어 자리에 오르거나 자리에서 내려와 들어간다는 표현만 있고 등장과 퇴장의 장소가 없다는 것을 근거로 합문이나 내합을 전각 내부의 공간을 구획하는 문으로 추정한 연구가 있다.(경세진, 앞의 논문. 315쪽) 그런데 세종실록 오례의 상참의에는 이 과정을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外辦, 殿下具翼善冠袞龍袍出卽座, 纖扇侍衛如常儀 (중략) 殿下還內'라 하였고 조참의는 '判通禮詣閤外俯伏跪, 啓請中嚴, 殿下具翼善

(東廂)과 서상(西廂)에 있다가 정전의 동, 서문을 통해 정전 마당으로 들어왔다. 이들이 정전으로 들어 온 정전의 동,서문은 앞에서 언급된 합문(閤)을 말한다.『說文解字』에 상(廂)은 행랑(廊)이라 했다.[60] 중궁전의 정전 앞에 별도의 전각이 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곳은 전각이 없이 행랑만 존재했던 공간으로 추정된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궁전의 구조는 정전에서 내전으로 들어가는 내합이 있었고 정전 앞에 합문이 있고 그 앞에 행랑이 있었다. 행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도 문이 있을 것이며 이 문이 중궁정문일 것이다. 앞에서 보았듯이 궁문과 정문은 별개로 존재했는데 왕비궁문은 왕비궁을 둘러싼 담장에 설치된 정문일 것이다.[61] 즉 궁문→중궁정문→합문→내문으로 이어지는 공간구조이다. (그림2의 ①참조)

세종 때는 따로 모셔야할 대비(大妃)가 없었기 때문에[62] 궁궐에 대비전이 필요 없었다. 세조때까지도 역시 대비전이 필요 없었는데 이 시기에는 아마 동쪽영역에는 왕비전과 후궁들의 전각만 있었을 것이다.

성종 때에는 3분의 대비를 모셔야 했는데 성종은 주로 창덕궁에서 거처했지만 삼대비(三大妃)는 경복궁에 머물기도 했다.[63] 그리고 중궁이 삼대비와 함께 이어하기도 했으며 중궁이 창덕궁에 있을 때에도 대비에 문안드리기 위해 경복궁에 가서 며칠씩 보내기도 했었다.[64] 그렇다면 모두 4명의 왕비가 경복궁에서 머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왕비는 장시간 머물지는 않았지만 삼대비는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들이 거처하는 전각이 있어야 했다. 또한 중종 때도 자순왕대비(慈順王大妃)가 있었으며, 명종 때는 대왕대비와 공의왕대비(恭懿王大妃), 그리고 중전이 있었다. 선조 역시 공의왕대비와 의성왕대비(懿聖王大妃)[65] 그리고 중전이 동조에서 함께 생활했다.

이처럼 많게는 3분의 대비와 중전까지 동조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공간이

---

冠袞龍袍卽座, 繖扇侍衛如常儀 (중략) 還思政殿'이라 하였다. 이 기록상으로 보면 사정전의 자리(座)로 나오기까지의 과정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참의나 조참의에서 임금이 의례를 위해 처음에 출발하는 장소는 동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의례가 끝난 후 상참은 '환내'하였고 조참은 '환사정전'하였다. 중궁의 의례에서 '내합'의 경우에도 어느 곳에서 정전으로 나오는 지 기록되어 있지 않다. 일반적으로 '尙宮前導以入'하였고 '中宮正至會命婦儀'의 경우 '환내'하였는데 각주 57)에서 보듯이 '內'라는 곳이 정전의 방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60) 廂 廊也 물론 상이 항상 廊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康熙字典』의《註》에 '殿東堂也。索隱曰：正寢之東西室, 皆號曰廂'이라 하여 정침이나 당의 실을 의미하기도 한다.

61) 발굴에 의하면 외소주방 본채 건물지 서에서 4번째 적심에서 시작하는 잔존길이 25m, 너비 1m인 남북방향의 담장지가 발굴되었는데 고종연간 이전 어느 시점에 사용되다가 폐기된 것으로 추정하였다.(國立文化財硏究所 『景福宮 燒廚房址 發掘調査報告書』 2008.7. 84쪽 참조.) 그렇다면 이 담장이 중궁전을 둘러싼 담장이고 담장의 남쪽에 궁문이 있는 형식으로 판단하였다.

62) 태종이 세종에게 양위하고 수강궁을 영건하고(『세종실록』 즉위년 무술(1418) 11월 3일(기유)) 그곳으로 옮겨 거처하였는데 태종이 승하하기 전에 태종의 왕비가 먼저 승하했기 때문에 대비만을 별도로 모시지 않았다.

63) 『성종실록』 12년 신축(1481) 5월 12일(병술) 및 13년 임인(1482) 2월 7일(병오) 등 참조. 삼대비는 세조의 비(妃)인 자성대비(慈聖大妃, 貞喜王后)로 대왕대비라 하였고, 예종의 계비(繼妃)인 인혜대비(仁惠大妃, 安順王后)는 왕대비라 하였으며 덕종의 비이자 성종의 어머니인 인수대비(仁粹大妃, 昭惠王后) 세분을 말한다.

64) 일례로 『성종실록』 13년 임인(1482) 12월 22일(병술)과 『성종실록』 14년 계묘(1483) 1월 3일(병신) 참조

65) 중종 때의 자순왕대비는 성종의 2계비인 정현왕후(貞顯王后) 윤씨, 명종 때의 대왕대비는 중종의 2계비인 문정왕후(文定王后) 윤씨이며 공의왕대비는 인종비인 인성왕후(仁聖王后)이며 의성왕대비(懿聖王大妃)는 명종비인 인순왕후(仁順王后)이다.

필요했다. 이들 중 한 분은 동궁을 이용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소한 3분의 왕비가 거처하기 위한 공간이 있어야 했다.

사료7

1) 경복궁은 전좌(殿坐)와 실우(室宇)의 제도가 구비되었으며, 대비전(大妃殿) 및 동궁(東宮)도 따로따로 갖추었기 때문입니다.……근일 중전(中殿)이 정전(正殿)에서 하례를 받았는데 이 역시 궁전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66]

2) 융문루의 동쪽을 지나서 동궁에 이르러 의막으로 들어가 공의왕대비전에 문안을 드리고, 또 동으로 문소전 곁에 이르러 자전에 문안을 드리고 물러나 동문의 곁 군포에 이르러……[67]

3) 문소전의 서편으로 가서 중전께 문안을 드려 또 답사를 받았다.[68]

4) 초하룻날의 일을 다시 아랫사람에게 물어보니 강녕전 동쪽 처마밑 뜰 아래 버려져 있었다고 했다. 이곳도 세거리로(此處亦似三街路)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있다.[69]

사료7의 1)은 중종이 창덕궁에 오래 머물고 있을 때 법궁(法宮)인 경복궁에서 정사를 봐야 한다고 주장한 내용이다. 창덕궁에서는 궁전을 갖추지 못하여 중전이 정전(正殿)에서 하례를 받았다고 했는데[70] 궁전이라 함은 중궁전을 의미한다. 앞에서 보았듯이 성종 때 三大妃가 경복궁에 머물고 있었을 때 이미 대비전이 갖추어졌다. 여기에서는 대비전과 동궁뿐만 아니라 중궁전도 별도로 있어서 의례를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료7의 2)는 선조 때의 일로 임금에게 먼저 문안을 드리고 융문루를 지나 동궁에 있는 의막에서 공의왕대비전에 문안을 드렸다. 다음으로 동쪽에 이르러 문소전 곁에서 자전에게 문안을 드렸다. 즉 자전이 있는 전각은 왕대비전의 서쪽에 위치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선조는 왕비를 책봉하지 않은 상태였다. 사료7의 3)은 중전이 창덕궁에서 경복궁으로 옮겨왔을 때 문소전 서편으로 가서 중전에게 문안을 드린 일로 이때는 중전이 있었다.[71]

사료7의 2)에서 자전에게 문안을 드린 곳은 문소전 곁이고 사료7의 3)에서 중전에게 문안을 드린 곳은 문소전 서쪽이다. 그리고 사료6의 5)에 의하면 공의전 앞으로 가서 문안을 하고 이어서 의정전과 중전께 문안을 드렸다. 인종과 명종은 중종의 이복(異腹)형제로 인종이 먼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종비인 공의전이 명종비인 의성전보다 위계가 높다. 그래서 위계에 따라 공의전과 의성전, 중전의 순으로 문안을 드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위의 사료들에 의하면 전각의 위치도 공의전이 중심영역에서 가장 가까웠고 의성전과 중전의 전각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배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의 공의전이 거처하는 대비전은 세종 때 왕비궁으로 사용되었으며 성종 때는 대왕대비인 정희왕후가 거처한 공간이고, 의성전이나 중궁전은

66) 『중종실록』 12년 정축(1517) 7월 28일(신축)

67) 柳希春 『眉巖日記』 제1권 丁卯 十一月 十二日. 潭陽鄕土文化硏究會 1992. 81쪽. '遂橫過經筵廳及隆文樓之東 至東宮入依幕 納問安于恭懿王大妃殿 又東至文昭殿側 納問安于慈殿 退至東門側軍鋪'

68) 柳希春 『眉巖日記』 제3권, 壬申 十月 初二日. 潭陽鄕土文化硏究會 1994. 380쪽. '尋至文昭殿之西 問安于中殿 又被答辭'

69) 『중종실록』 22년 정해(1527) 3월 24일(신축)

70) 이때 왕비는 선정전에 나아가 내외 명부의 하례를 받고 백관은 인정전에서 진하하였는데 위의 정전이란 선정전을 말한다. 『중종실록』 12년 정축(1517) 7월 20일(갑오)

71) 선조는 1569년(선조2년) 가을에 반성부원군 박응순(朴應順)의 딸을 맞이하여 왕비로 삼았다. 『선조실록』 부록 선조대왕묘지문[誌文] 참조

성종 때 인혜대비와 인수대비가 사용했던 공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사료4의 1)에 의하면 세자궁의 서북쪽 담장에 동산이 있었는데 이 동산은 동궁의 하인들뿐만 아니라 삼전(三殿)의 하인들도 출입하는 곳이었다.[72] 따라서 대내에서 그곳으로 가는 문이 있었고 그 문을 닫아서 통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한 것이다. 문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대내와 동산은 담장으로 구획되었을 것이다.

사료7의 4)도 사료 4의 1)과 마찬가지로 중종 22년에 발생한 작서(灼鼠)의 변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3월 초하루에 발생한 일인데 강녕전 동쪽 처마 밑에 버려져 있다고 했다. 그런데 대전 근처에 버려졌다고도 하고[73] 대비전에서 지극히 가까운 곳에 버려졌고 사람들이 많이 통행하는 처마 아래라고도[74] 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대전은 강녕전을 의미하는데 동쪽에 대비전이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가능했을 것이다. 사료 9에서처럼 이곳은 삼거리로 사람이 많이 왕래하고 있다거나 또는 사통오달(四通五達)이라서 왕래하는 사람이 많다고[75] 했다.

이때는 중심영역 동쪽 행랑의 바로 동편에 길이 있고 그 동편으로 대비전이 있었으며 그 동쪽으로 중궁전이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대비전과 중궁전의 남쪽에는 길이 있어서 삼거리를 만들었고 이 길을 통해 임금와 대비, 중궁전에 관련된 사람들이 왕래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의 남쪽에는 빈전(嬪殿)과 궁주전(宮主殿) 등의 후궁과 시녀 등을 위한 공간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그림2 참조)

기타 공간으로 먼저 인지당은 『동국여지승람』에 교태전 동쪽에 있다고 했다.[76]

사료8

1) 함원전·교태전은 세자가 거처할 수 없으므로……나는 임영군의 집에 옮아가 있고, 동궁이 인지당에 들어와 있으면서[77]

2) 함원전은 곧 내전(內殿)이므로 명분에 어긋나오니……자미당은 군상이 거처하는 곳이므로 들어가 거처할 수 없다. ……인지당은 또 내장(內墻) 밖에 있으니 동궁으로 하여금 들어가서 거처하게 하라."[78]

사료8의 1)은 세종이 세자에게 양위할 생각으로 가뭄을 핑계로 임금이 다른 곳으로 이어하고 동궁이 궐내에 들어와 있게 하려는 논의이다. 세종은 자신이 인지당을 세웠는데 정궁(正宮)이 아니고 정전(正殿)의 밖에 있다고 했다.[79] 여기에서 정전이라 함은 경복궁 창건 때 영건했던 근정전으로부터 강녕전까지의 영역을 말한다. 함원전이나 교태전도 역시 정궁은 아니지만 세자가 거처할 수 없고 대신 인지당에 들어와 거처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사료8의 2)에서처럼 함원전은 내전이고 자미당은 군상이 거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세자가 들어갈 수 없고 인지당은 내장(內墻) 밖에 있으니 동궁이 들어가 거처하라고 했다. 내장이라고 하는 것은 교태전과 자미당, 청연루 등으로 이루어진 중심영역의 북쪽부분과 동조(東朝)를 둘러싼 담장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인지당은 중심영

72) 『중종실록』 22년 정해(1527) 3월 23일(경자)

73) 『중종실록』 22년 정해(1527) 3월 24일(신축)

74) 『중종실록』 22년 정해(1527) 4월 3일(기유)

75) 『중종실록』 22년 정해(1527) 4월 3일(기유)

76) 李荇 『新增東國輿地勝覽』 제1권 京都上 宮闕 景福宮條

77) 『세종실록』 31년 기사(1449) 6월 18일(병인)

78) 『세종실록』 31년 기사(1449) 7월 12일(경인)

79) 『세종실록』 31년 기사(1449) 6월 19일(정묘)

역에서 내장으로 구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명종 8년 9월 경복궁 대내의 화재로 강녕전 등의 전각이 모두 소실되었을 때에도 무관했던 것이다.[80] 세조 때에도 세자가 인지당에 거처했었는데[81] 인지당의 구조가 자선당과는 달랐겠지만 동쪽에 별실이 있었기 때문에[82] 이곳에서 세자빈이 거처했을 것이다.

문소전(文昭殿)은 세종 14년에 경복궁으로 옮겨지었으며[83]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경복궁 성 안의 동쪽에 있다고 했다. 선원전(璿源殿)은 세종 20년에 소전의 동북쪽 모퉁이에 옮겨지었는데[84] 『신증동국여지승람』에도 문소전의 동북에 있다고 했으며[85] 『미암일기』에는 문소전의 동쪽에 있다고 했다.[86] 그런데 위의 사료8의 2)나 3)에서처럼 문소전에서 자전이나 중전에게 문안을 드린 것은 문소전이 곧 대내와 가까웠으며 특히 대내의 남쪽에서보다 문소전 쪽이 자전이나 중전이 거처하는 공간과도 가까웠기 때문에 이곳에서 문안을 드렸을 것이다. 문소전의 남문에는 의막(依幕)도 설치할[87] 수 있었고 그 주변에서 채소를 심기도 한 것으로[88] 보아 문소전 주변은 빈 터였을 것이다.

<그림 2> 경복궁 동궁, 동조 영역의 추정배치도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종합하여 경복궁 중심영역의 동쪽 부분에 대한 배치를 추정하면 <그림2>와 같다.

이 그림 중 동궁 영역에서 계조당은 세종 후반과 문종 때에만 존재했었으며 승화당은 중종 때 동궁의 화재 이후 자선당만 중건되고 승화당은 중건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동조영역에서는 세조 때까지 중궁전과 빈전(嬪殿)들이 있다가 성종 이후로 이전의 중궁전은 대왕대비전으로 전용되고 그 동쪽으로 대비전과 중궁전이 추가되거나 기존의 빈전을 전용하였을 것이다. 이들의 전각은 위계상 동궁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동궁의 평면형식와 같은 전전(前殿)과 후전

80) 『명종실록』 8년 계축(1553) 9월 14일(정사) 및 홍섬(洪暹) 『忍齋先生文集』 卷之四 雜著 景福宮重新記 참조

81) 『세조실록』 7년 신사(1461) 3월 9일(경술)

82) 『세조실록』 9년 계미(1463) 5월 30일(무오)

83) 『세종실록』 14년 임자(1432) 10월 29일(갑인) 및 11월 3일(무오) 등 참조

84) 『세종실록』 20년 무오(1438) 3월 29일(계축) 및 『세종실록』 20년 무오(1438) 5월 19일(임인)

85) 李荇,『新增東國輿地勝覽』 제1권 京都上 宮闕條.

86) 柳希春,『미암일기(眉巖日記)』 2권 庚午 十月十三日. 潭陽鄕土文化硏究會 1993.p.568

87) 柳希春,『眉巖日記』 癸酉 十月 十八日 제4권 潭陽鄕土文化硏究會 1996. p.230

88) 『중종실록』 9년 갑술(1514) 3월 14일(정축)

(後殿)을 갖는 구조로 추정할 수도 있지만 이미 정전이 존재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전은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작성하였다. 그리고 그 남쪽으로 빈전(嬪殿)과 기타 후궁과 궁관들의 공간, 일상생활을 위한 공간들이 위치하였을 것이다.

## 4. 결론

지금까지 각종 문헌을 토대로 조선전기 경복궁의 동궁과 동조의 건축공간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본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복궁에 동궁이 건설된 것은 세종 때로 당시의 동궁은 자선당, 승화당, 계조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계조당은 서향으로 배치되었으며 단종 때 철거되었고 승화당은 중종 때 동궁의 화재로 소실된 이후 중건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들의 공간구성방식은 정문이 있고 전당과 합문 그리고 후당 또는 침전이 있었으며 주변이 행랑과 담장으로 구성되었다.

동궁에는 왕세자빈을 위한 빈전이 별도로 존재했었으며 그 외에 후궁들을 위한 공간이 있었다.

동궁과 동조는 담장에 의해 구분된 공간이었다. 동조에는 대비의 생활공간뿐만 아니라 동전(東殿)이라고 하여 임금의 침전과는 별도로 왕비의 침전인 중궁전이 있었으며 빈전과 궁주도 역시 구획된 별도의 공간에서 생활했었다.

대왕대비전과 왕대비전, 중궁전은 위계상 중심공간의 동쪽 공간에 위치하면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순서대로 배치되었다.

중궁전은 궁문과 정문, 합문과 정전 그리고 내합과 침전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문과 합문 사이에는 행랑으로 구성된 공간으로 파악된다.

인지당은 교태전 동쪽의 내장(內墻) 밖에 별도의 공간으로 배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동북쪽으로 원묘인 문소전이 있었고 문소전 동북쪽으로 선원전이 위치했었다.

<그림2>는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추정한 배치도이다.

<참고문헌>

1.『經國大典』 (국회도서관제공(누리미디어) 국역본 및 원문)
2.『宮闕志 I』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서울학연구소 번역. 1994. 12.
3.『신증동국여지승람』 (고전번역원제공 번역본 및 원문)
4.『조선왕조실록』 태조~선조 (고전번역원제공의 번역본 및 원문)
5. 柳希春,『미암일기(眉巖日記草)』제1~5집 潭陽鄕土文化硏究會(번역본), 國學資料院, 1982(원문)
6. 곽순조,『宮闕運營을 通하여 본 朝鮮前期 景福宮의 配置特性에 關한 硏究』, 성균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년
7. 조재모,『朝鮮時代 궁궐의 의례운영과 건축형식』,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03. 8.

접수(2011. 12. 15)
수정(1차: 2012. 2. 20, 2차: 2012. 2. 27)
게재확정(2012. 2. 28)

# A study on the Architectural Space of Donggung and Dongjo at Gyeongbokgung in the early Joseon Dynasty

Yi, Jeong-Kuk
(Dari Architects & Engineers)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architectural space of Donggung(東宮), the Prince's Palace, and Dongjo(東朝), the King's Mother and Queen's living space, in the early Joseon Dynasty.

The Royal palace can be divided into three parts, political space for king, living space for king and his family and government office. So first, we should to understand the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 in the Royal Palace.

Up to now we have looked at the architectural space of Donggung(東宮) and Dongjo(東朝) in Gyeongbokgung(景福宮), one of the Royal Palace, the result of this study is as followings.

Donggung which was living space for Prince consisted of Jaseondang(資善堂), Seunwhadang(承華堂) and Kyejodang(繼照堂) in the era of King Sejong

Kyejodang was demolished and Seunwhadang was destroyed by fire in King Jungjong era and was not rebuilded. This buildings

The buildings consisted of Jeondang, Whudang, main gate, hapmun(閤門) and corridor or fence

Donggung and Dongjo was separated wall

Dong consisted of many buildings for Queen dowager, Queen and many royal concubines

The arrangement of Donggung and Dongjo was assumed like as the Fig2.

Keywords : Gyeongbokgung, Donggung, Dongjo, Dongjeon, Binjeon